

방제구성을 이용한 劉河間 및 李東垣의 저작과 『和劑局方』의 특성 비교*

¹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 ²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오월환¹ · 김기욱² · 이병욱² · 김은하¹ **

Feature Comparison by Prescription Configuration Analysis among Liuhejian's and Lidongyuan's Books and *Hejijufang*

Wu Yueh-Hwan¹ · Kim Ki-Wook² · Lee Byung-Wook² · Kim Eun-Ha¹ **

¹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²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I hope this prescription configuration analysis among Liuhejian's and Lidongyuan's books and 『Hejijufang』 would explain the differences among Liuhejian's and Lidongyuan's theories against *Hejijufang*.

Methods : I have searched for frequently used herbs combinations in the books and compared each features with others. And then I'd like to find out similar prescription by comparing composition ratio of configuring herbs.

Conclusions : (1) In the composition ratio of configuring each of herbs Liuhejian's composition ratio of configuring herbs is higher than 『Hejijufang』 and Lidongyuan's prescriptions.

(2) Lidongyuan's tendencies are about 'stimulate qi', 'removal of fever', 'removal of damp' and 'supplement of yin'. Liuhejian's tendencies are about 'removal of fever' and 'removal of wind'. Tendencies of 『Hejijufang』 are about 'heat up inside' and 'supplement of blood'. As I compared Lidongyuan's prescriptions with Liuhejian's, Lidongyuan's tendencies are about 'raising yang', 'supplement of qi', 'stimulation qi' and 'promotion of digestion'. Liuhejian's tendencies are about 'removal of fever' and 'removal of wind'.

(3) I could prove that Liuhejian and Lidongyuan had created new theories against tendency of *Hejijufang*.

Key Words : Liuhejian, Lidongyuan, Hejijufang, Prescription analysis.

* 본 논문은 오월환의 동일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Kim Eun-Ha College of Korean Medicine, 1 Haanydaero, Gyeongsan-si, Gyeongsangbuk

I. 序 論

금원사대가의 학술사상은 많은 연구자들의 주요한 연구주제였으며, 그들의 학설은 당대 최고의 학설로 한의학 이론의 발전을 추동했다고 평가되었다¹⁾. 최근에는 처방을 이용하여 의가의 사상을 해석하려는 연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처방에 대한 의가 본인의 의견에 대한 해석 방법²⁾, 본초 조합을 이용한 연구 방법³⁾, 문헌에 기재된 방제의 본초구성비를 이용한 연구 방법⁴⁾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신 연구인 오⁵⁾의 연구에서도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에 대해서만 『和劑局方』의 차이점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으므로 나머지 대표 저작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이동원과 유하간의 대표저작들의 방제와 『和劑局方』에 수록된 방제의 구성분석을 통하여 두 의가의 학술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방제에 사용된 본초의 종류, 다빈도 본초 조합,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군신좌사의 특징, 그리고 문헌간의 방제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和劑局方』과 이동원, 유하간의 문헌에 기재된 방제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금원사대가인 이동원과 유하간이 『和劑局方』과 어느 정도 차별화된 방제를 사용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러한 최근의 분석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太平惠民和劑局方』(이하 『和劑局方』)과 『蘭室秘藏』,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素問宣明論方』(이하 『宣明論方』), 『三消論』, 『傷寒直格』, 『傷寒標本心法類萃』(이하 『心法類萃』), 『素問病機氣宜保命集』(이하 『保命集』)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동원과 유하간의 개혁적이고 창조적인 이론이 처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研究 方法

1. 기초자료

1) 방제 기본 통계

金元四大家醫學全書 중 劉河間的 『宣明論方』, 『保命集』, 『傷寒直格』, 『心法類萃』, 『三消論』과 李東垣의 『蘭室秘藏』, 『內外傷辨惑論』, 『脾胃論』에 기록된 방제와 『和劑局方』의 방제를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상기 문헌에 사용된 본초의 종류는 모두 587종이었다. 각각의 문헌에 기록된 방제와 본초의 종류 및 방제에 포함된 평균 본초의 수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 과정에서 生薑과 大棗 등이 방제의 복용법에 해당되는 내용에 포함되어 표기된 경우에는 제외하였다.

Table 1. Book-specific Number of prescriptions and kinds of herb. 문헌별 수록된 방제수와 사용된 본초의 종류(*는 기존 연구의 본초 목록에서 이명을 찾아 수정한 결과임.)

문헌	방제수	본초종류	평균본초수
蘭室秘藏	277	214*	10.4
內外傷辨惑論	46	89	8.1
脾胃論	63	102	8.5
宣明論方	350	346*	6.9
三消論	11	37	5.8
傷寒直格	35	55	4.7
心法類萃	67	139	5.9
保命集	212	184	5.1
和劑局方	765	481	8.6

-do, Korea.

Tel: 053-819-1882, E-mail: ehkim@dhu.ac.kr.

Received(16 January 2015), Revised(11 February 2015),

Accepted(13 February 2015).

- 1) 박우용, 백진웅, 이병욱.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본초구성 비교 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권 2호. p.117.
- 2) 정성채, 장희욱, 김기욱, 박현국, 이병욱. 유원소의 방제학설 및 임상경험에 관한 연구-『黃帝素問宣明論方』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권 4호. pp. 101-119.
- 3) 박우용, 백진웅, 이병욱.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본초구성 비교 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권 2호. pp.117-123.
- 4) 오월환, 김기욱, 이병욱, 김은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구성 비교.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2014. 27(4). pp. 121-122.
- 5) 오월환, 김기욱, 이병욱, 김은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구성 비교.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2014. 27(4). pp. 121-122.

2. 研究 方法

본 연구에서는 『和劑局方』과 이동원 그리고 유하간의 대표저작들의 방제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和劑局方』과 두 의가의 학술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방제에 사용된 본초의 종류, 다빈도 본초 조합,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군신좌사의 특징, 그리고 문헌간의 방제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和劑局方』과 이동원, 유하간의 문헌에 기재된 방제의 유사도를 분석하여 금원사대가인 이동원과 유하간이 『和劑局方』과 어느 정도 차별화된 방제를 사용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다빈도 본초조합 분석은 박⁶⁾의 논문에 소개된 방법을 사용하였고, 방제 구성의 유사도 분석은 박⁷⁾의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방제의 본초 구성비를 활용한 본초 등급의 분석은 김⁸⁾의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을 이용하였다.

Ⅲ. 本 論

1. 다빈도 본초 조합 분석 결과

1)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숫자 분포

수록된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수를 기준으로 문헌의 평균 본초수를 계산하면, 『和劑局方』(8.6개), 『蘭室秘藏』(10.4개), 『內外傷辨惑論』(8.1개), 『脾胃論』(8.5개), 『宣明論方』(6.9개), 『三消論』(5.8개), 『傷寒直格』(4.7개), 『心法類萃』(5.9개), 『保命集』(5.1개)로 나타났다. 이는 유하간의 저작에 기재된 방제가 이동원의 저작에 기재된 방제와 『和劑局方』에 기재된 방제와 비교하여 본초의 종류를 적게 사용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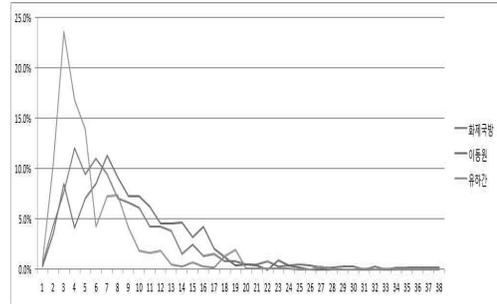


Fig 1. Author-specific prescription number distribution based in herbal composition. 문헌별 구성 본초수에 따른 방제 분포도(도표의 x축은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수, y축은 문헌별 n개 본초로 구성된 방제 수를 나타낸다.)

2) 劉河間과 李東垣의 저작 및 『和劑局方』의 다빈도 본초 조합

(1) 『和劑局方』

『和劑局方』에서는 (甘草, 當歸, 白朮, 茯苓, 肉桂, 人蔘, 川芎)과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茯苓, 肉桂, 人蔘) 그리고 (乾薑, 當歸, 白朮, 茯苓, 肉桂, 人蔘, 川芎)의 조합이 다빈도로 사용되었다.

(2) 『宣明論方』

『宣明論方』에서는 (甘草, 當歸, 白芍藥, 白朮, 石膏, 川芎, 黃芩)과 (甘草, 桔梗, 大黃, 薄荷, 白朮, 石膏, 連翹) 그리고 (甘草, 桔梗, 當歸, 大黃, 白朮, 石膏, 荊芥)의 조합이 다빈도로 사용되었다.

(3) 『保命集』

『保命集』에서는 (桂枝, 麻黃, 防己, 防風, 白芍藥, 人蔘, 川芎, 黃芩), (甘草, 麻黃, 防己, 防風, 白芍藥, 人蔘, 川芎, 黃芩), (甘草, 桂枝, 防己, 防風, 白芍藥, 人蔘, 川芎, 黃芩), (甘草, 桂枝, 麻黃, 防風, 白芍藥, 人蔘, 川芎, 黃芩), (甘草, 桂枝, 麻黃, 防己, 白芍藥, 人蔘, 川芎, 黃芩), (甘草, 桂枝, 麻黃, 防己, 防風, 人蔘, 川芎, 黃芩), (甘草, 桂枝, 麻黃, 防己, 防風, 白芍藥, 人蔘, 川芎), (甘草, 桂枝, 麻黃, 防己, 防風, 白芍藥, 川芎, 黃芩), (甘草, 桂枝, 麻黃, 防己, 防風,

6) 박우용, 백진웅, 이병욱.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본초구성 비교 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권 2호. pp.117-123.
 7) 박대식, 이부균, 이병욱. 방제의 본초 중량비를 활용한 방제 비교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3. 21권 2호. pp.121-132.
 8) 김기욱, 김태열, 이병욱. 본초 비율의 순위를 이용한 문헌의 특징 분석 방법.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4). p. 74.

白芍藥, 人蔘, 黃芩)의 조합이 다빈도로 사용되었다.

(4) 『三消論』, 『傷寒直格』, 『心法類萃』

『三消論』, 『傷寒直格』 그리고 『心法類萃』에서는 (甘草, 當歸, 大黃, 芒硝, 白芍藥, 白朮, 石膏, 連翹, 梔子, 滑石)의 조합이 다빈도로 사용되었다.

(5) 『蘭室秘藏』

『蘭室秘藏』에서는 (甘草, 升麻, 柴胡, 人蔘, 陳皮, 蒼朮, 黃芪, 黃柏), (甘草, 當歸, 升麻, 柴胡, 陳皮, 蒼朮, 黃芪, 黃柏), (甘草, 當歸, 升麻, 柴胡, 人蔘, 蒼朮, 黃芪, 黃柏) 그리고 (甘草, 當歸, 升麻, 柴胡, 人蔘, 陳皮, 黃芪, 黃柏)의 조합이 다빈도로 사용되었다.

(6)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內外傷辨惑論』과 『脾胃論』에서는 (甘草, 當歸, 麥門冬, 白朮, 升麻, 神麩, 五味子, 人蔘, 陳皮, 蒼朮, 黃芪, 黃柏)의 조합이 다빈도로 사용되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和劑局方』과 이동원 그리고 유하간의 저작에서 다빈도로 사용된 본초 조합의 본초 종류를 비교하면, 『和劑局方』에서는 乾薑, 茯苓, 肉桂가 다빈도 조합에 포함되어 다른 두 의가들의 문헌과 구별되었다. 유하간의 저작인 『宣明論方』, 『保命集』, 『三消論』, 『傷寒直格』, 『心法類萃』에만 포함된 다빈도 조합 본초에는 桂枝, 桔梗, 大黃, 麻黃, 芒硝, 薄荷, 防己, 防風, 石膏, 連翹, 梔子, 荊芥, 滑石이 있어 『和劑局方』 및 이동원의 다른 문헌과 구별되었다. 이동원의 저작인 『蘭室秘藏』과 『內外傷辨惑論』 그리고 『脾胃論』에만 포함된 다빈도 조합 본초에는 麥門冬, 升麻, 柴胡, 神麩, 五味子, 陳皮, 蒼朮, 黃芪, 黃柏이 있어 『和劑局方』과 유하간의 다른 문헌과 구별되었다.

문헌별 방제에 사용된 다빈도 본초 조합의 본초 목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Table 2. Book-specific frequently used herb list. 문헌별 다빈도 조합에 사용된 본초 종류

목록	和劑局方	宣明論方	氣宜保命	河間著作	蘭室秘藏	東垣著作
甘草	○	○	○	○	○	○
乾薑	○					
桂枝			○			
桔梗		○				
當歸	○	○		○	○	○
大黃		○		○		
麻黃			○			
芒硝				○		
麥門冬						○
薄荷		○				
防己			○			
防風			○			
白芍藥	○	○	○	○		
白朮	○	○		○		○
茯苓	○					
石膏		○		○		
升麻					○	○
柴胡					○	
神麩						○
連翹		○		○		
五味子						○
肉桂	○					
人蔘	○		○		○	○
陳皮					○	○
蒼朮					○	○
川芎	○	○	○			
梔子				○		
荊芥		○				

목록	和劑局方	宣明論方	氣宜保命	河間著作	蘭室秘藏	東垣著作
滑石				○		
黃芩		○	○			
黃芪					○	○
黃柏					○	○

2. 본초의 중량비 분석 결과

1) 본초구성의 유사도 분석 결과

(1) 분석 개요

『和劑局方』과 『蘭室秘藏』,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宣明論方』, 『保命集』, 『傷寒直格』, 『心法類萃』, 『三消論』에 기재된 방제의 본초구성을 무게의 비율로 표현한 뒤 구성한 본초사이의 차이를 계산하여 세 문헌 각각 유사한 본초구성을 가진 방제를 찾는다. 또한 동일한 명칭을 가진 방제가 있을 경우 방제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和劑局方』의 처방을 인용하였는지를 파악한다. 유사한 방제에 대한 기준은 방제 구성이 80% 이상 유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구성비 차이 분석은 0 ~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0.4 이하인 경우는 비교사는 방제 사이의 본초의 구성이 80% 이상 동일하다고 보았다. 이에 유사도의 값이 0.4 미만인 경우를 찾아 각각 문헌 사이의 유사한 방제를 추출하였다.

(2) 유사 방제 검색 결과

Table 3. Result of searching similar herbal composition between prescriptions of hwajegukbang and Lidongyuan's and Liuhejian's prescriptions. 이동원 및 유하간의 방제와 『和劑局方』의 유사방제 검색 결과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방제명	문헌명
荊芥湯	85.7%	桔梗湯	蘭室秘藏
黃芪六一湯	83.3%	當歸補血湯	蘭室秘藏
黃芪六一湯	83.3%	黃芪當歸湯	蘭室秘藏
紅雪通中散	82.7%	益黃散	蘭室秘藏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방제명	문헌명
白龍丸	80.0%	升陽益血湯	蘭室秘藏
雙和湯	100.0%	雙和散	內外傷辨惑論
備急丸	86.7%	備急大黃丸	內外傷辨惑論
黃芪六一湯	83.3%	當歸補血湯	內外傷辨惑論
五苓散	81.3%	五苓散	內外傷辨惑論
三黃丸	100.0%	三黃丸	脾胃論
錢氏白朮散	100.0%	白朮散	脾胃論
胃風湯	100.0%	胃風湯	脾胃論
平胃散	91.0%	加減平胃散	脾胃論
備急丸	86.7%	備急丹	脾胃論
厚朴散	81.1%	加減平胃散	脾胃論
四君子湯	80.0%	異功散	脾胃論
三黃丸	86.7%	三黃丸春方	三消論
三黃丸	83.3%	三黃丸冬方	三消論
三黃丸	100.0%	大黃黃連瀉心湯	傷寒直格
桂枝湯	91.7%	桂枝湯	傷寒直格
消暑丸	87.2%	茯苓半夏湯	傷寒直格
人參丸	83.3%	茯苓半夏湯	傷寒直格
丁香半夏丸	83.3%	茯苓半夏湯	傷寒直格
小柴胡湯	100.0%	小柴胡湯	心法類萃
三黃丸	100.0%	大黃黃連瀉心湯	心法類萃
桂枝湯	98.1%	桂枝湯	心法類萃
升麻葛根湯	91.7%	升麻葛根湯	心法類萃
香薷散	90.0%	黃連香薷飲	心法類萃
錢氏白朮散	89.0%	白朮散	心法類萃
涼膈散	80.3%	涼膈散	心法類萃
小青龍湯	80.3%	小青龍湯	心法類萃
三黃丸	100.0%	三黃丸	宣明論方
烏荊丸	100.0%	烏荊丸	宣明論方
三黃丸	100.0%	大黃黃連瀉心湯	宣明論方
四生散	100.0%	四聖散	宣明論方
辰砂半夏丸	100.0%	辰砂半夏丸	宣明論方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방제명	문헌명
胃風湯	100.0%	胃風湯	宣明論方
秘傳羊肝丸	97.4%	黃連丸	宣明論方
人參順氣散	94.6%	人參潤肺湯	宣明論方
桂枝湯	91.7%	桂枝湯	宣明論方
藿香散	91.1%	調胃散	宣明論方
錢氏白朮散	89.3%	白朮散	宣明論方
消暑丸	87.2%	茯苓半夏湯	宣明論方
何首烏丸	85.7%	大豆散	宣明論方
何首烏丸	85.7%	大黃甘草飲子	宣明論方
荊芥湯	85.7%	白藥子散	宣明論方
五味湯	85.6%	五味子湯	宣明論方
不換金正氣散	83.3%	調胃散	宣明論方
橘皮半夏湯	83.3%	橘皮半夏湯	宣明論方
人參丸	83.3%	茯苓半夏湯	宣明論方
丁香半夏丸	83.3%	茯苓半夏湯	宣明論方
茴香湯	81.0%	白藥子散	宣明論方
檀香湯	80.6%	白藥子散	宣明論方
紅雪通中散	80.2%	黃連膏	宣明論方
樺皮散	100.0%	樺皮散	保命集
芍藥湯	100.0%	立效散	保命集
半硫丸	100.0%	半硫丸	保命集
理中湯	100.0%	理中丸	保命集
理中丸	100.0%	理中丸	保命集
朮附湯	94.3%	朮附湯	保命集
羌活散	92.9%	羌活湯	保命集
消暑丸	92.3%	半夏散	保命集
消暑丸	92.3%	生半夏湯	保命集
人參丸	90.9%	生半夏湯	保命集
人參丸	90.9%	半夏散	保命集
消暑丸	90.9%	玉粉丸	保命集
人參丸	90.9%	玉粉丸	保命集
小續命湯	90.9%	小續命湯	保命集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방제명	문헌명
小柴胡湯	90.1%	靑鎮丸	保命集
定志丸	90.0%	定志丸	保命集
當歸黃芪湯	87.1%	衛生湯	保命集
八味丸	86.2%	地黃丸	保命集
妙香丸	85.8%	妙香丸	保命集
十全飲	85.7%	十全散	保命集
四順理中丸	85.0%	理中丸	保命集
丁香半夏丸	84.5%	生半夏湯	保命集
丁香半夏丸	84.5%	半夏散	保命集
丁香半夏丸	84.5%	玉粉丸	保命集
白虎湯	83.7%	白芷湯	保命集
檳榔散	83.3%	木香散	保命集
十全大補湯	83.3%	十全散	保命集
七宣丸	81.6%	七宣丸	保命集
加減四君子湯	81.3%	四君子湯	保命集
十全飲	80.0%	八物湯	保命集
附子理中丸	80.0%	理中丸	保命集

(3) 동일 명칭 방제의 유사도 분석 결과

Table 4. Comparison result of herbal weight ratio using prescriptions of Hejijufang and Liuhejian's and Lidongyuan's with the same name. 동일 명칭의 이동원과 유사한 및 『和劑局方』의 방제 구성비 차이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출전	비고
七聖丸	0.962302	蘭室秘藏	
黃芪湯	1.076923	蘭室秘藏	
桔梗湯	1.428571	蘭室秘藏	
桔梗湯	1.428571	蘭室秘藏	
柴胡升麻湯	1.472488	蘭室秘藏	
羌活散	1.535503	蘭室秘藏	
黃芪湯	1.561546	蘭室秘藏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출전	비고
麻黃散	1.690562	蘭室秘藏	
溫肺湯	1.836066	蘭室秘藏	
黃芪湯	1.859649	蘭室秘藏	
細辛散	1.922859	蘭室秘藏	
細辛散	1.953488	蘭室秘藏	
神功丸	2	蘭室秘藏	
益黃散	2.055005	蘭室秘藏	
五苓散	0.375	內外傷辨惑論	유사 방제
神應丸	2	內外傷辨惑論	
胃風湯	0	脾胃論	유사 방제
三黃丸	0	脾胃論	유사 방제
感應丸	0.511151	脾胃論	
五苓散	0.527778	脾胃論	
神保丸	0.661685	脾胃論	
白朮散	1.35	脾胃論	
胃風湯	1.735799	脾胃論	
白朮散	1.962085	脾胃論	
神應丸	2	脾胃論	
人參散	1.889774	三消論	
人參散	1.894737	三消論	
桂枝湯	0.166667	傷寒直格	유사 방제
涼膈散	0.56156	傷寒直格	
茯苓半夏湯	0.583333	傷寒直格	
五苓散	0.617032	傷寒直格	
白虎湯	0.742747	傷寒直格	
大柴胡湯	0.802632	傷寒直格	
小柴胡湯	0.856162	傷寒直格	
小青龍湯	0.944174	傷寒直格	
麻黃散	1.055632	傷寒直格	
白朮散	1.378271	傷寒直格	
四逆湯	1.610465	傷寒直格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출전	비고
白朮散	1.962085	傷寒直格	
小柴胡湯	0	心法類萃	유사 방제
桂枝湯	0.038462	心法類萃	유사 방제
升麻葛根湯	0.166667	心法類萃	유사 방제
涼膈散	0.393411	心法類萃	유사 방제
小青龍湯	0.393651	心法類萃	유사 방제
五苓散	0.625	心法類萃	
茯苓半夏湯	0.666667	心法類萃	
麻黃湯	0.682899	心法類萃	
白虎湯	0.742747	心法類萃	
大柴胡湯	1.049342	心法類萃	
四逆湯	1.165929	心法類萃	
檳榔散	1.333333	心法類萃	
白朮散	1.364706	心法類萃	
蘆薈丸	1.830908	心法類萃	
白朮散	1.962085	心法類萃	
辰砂半夏丸	0	宣明論方	유사 방제
胃風湯	0	宣明論方	유사 방제
三黃丸	0	宣明論方	유사 방제
烏荊丸	0	宣明論方	유사 방제
桂枝湯	0.166667	宣明論方	유사 방제
橘皮半夏湯	0.333333	宣明論方	유사 방제
涼膈散	0.56156	宣明論方	
茯苓半夏湯	0.583333	宣明論方	
麻黃湯	0.699697	宣明論方	
白虎湯	0.742747	宣明論方	
人參散	1.054315	宣明論方	
小青龍湯	1.114379	宣明論方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출전	비고
四逆湯	1.165929	宣明論方	
增損四物湯	1.25	宣明論方	
調中湯	1.303167	宣明論方	
檳榔散	1.333333	宣明論方	
朱砂丸	1.333333	宣明論方	
加減吳茱萸湯	1.333333	宣明論方	
白朮散	1.333333	宣明論方	
白朮散	1.378271	宣明論方	
吳茱萸湯	1.38014	宣明論方	
辰砂丸	1.425287	宣明論方	
人參半夏丸	1.443532	宣明論方	
妙香丸	1.490548	宣明論方	
防風湯	1.5	宣明論方	
天南星丸	1.5	宣明論方	
伏龍肝散	1.505344	宣明論方	
人參散	1.507232	宣明論方	
黃芪湯	1.571429	宣明論方	
人參散	1.666667	宣明論方	
人參散	1.666667	宣明論方	
茴香丸	1.666667	宣明論方	
人參散	1.707317	宣明論方	
靈砂丹	1.714286	宣明論方	
何首烏丸	1.714286	宣明論方	
白朮散	1.733333	宣明論方	
木香散	1.777778	宣明論方	
人參散	1.777778	宣明論方	
烏金散	1.827626	宣明論方	
木香分氣丸	1.828572	宣明論方	
白朮散	1.854269	宣明論方	
人參散	1.87739	宣明論方	
人參散	1.882353	宣明論方	
犀角丸	1.916667	宣明論方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출전	비고
木香分氣丸	1.9375	宣明論方	
丁香散	1.961538	宣明論方	
白朮散	1.962085	宣明論方	
白朮散	1.962085	宣明論方	
菩薩散	1.98672	宣明論方	
肉豆蔻丸	1.986928	宣明論方	
消飲丸	2	宣明論方	
潤肺散	2	宣明論方	
碧霞丹	2	宣明論方	
赴筵散	2	宣明論方	
勝金丸	2	宣明論方	
烏金散	2	宣明論方	
半硫丸	0	保命集	유사방제
理中丸	0	保命集	유사방제
樺皮散	0	保命集	유사방제
朮附湯	0.114286	保命集	유사방제
小續命湯	0.181818	保命集	유사방제
定志丸	0.2	保命集	유사방제
妙香丸	0.283554	保命集	유사방제
七宣丸	0.368028	保命集	유사방제
半夏丸	0.47619	保命集	
四君子湯	0.5	保命集	
桂枝湯	0.588235	保命集	
五苓散	0.625	保命集	
涼膈散	0.642948	保命集	
麻黃湯	0.665874	保命集	
檳榔散	0.666667	保命集	
桔梗湯	0.777778	保命集	
七聖丸	0.873016	保命集	

和劑局方 방제명	유사도	출전	비고
黃芪湯	1.333333	保命集	
羚羊角散	1.5	保命集	
防風丸	1.529412	保命集	
白朮散	1.533333	保命集	
羌活散	1.538462	保命集	
半夏散	1.552381	保命集	
四物湯	1.557522	保命集	
防風湯	1.6	保命集	
當歸散	1.6	保命集	
荊芥散	1.666667	保命集	
當歸丸	1.680224	保命集	
防風湯	1.7	保命集	
防風湯	1.7	保命集	
白朮散	1.733333	保命集	
當歸丸	1.755952	保命集	
木香散	1.771429	保命集	
木香散	1.771429	保命集	
木香散	1.771429	保命集	
柴胡散	1.833333	保命集	
牛黃膏	1.841223	保命集	
金露丸	1.916667	保命集	
白朮散	1.962085	保命集	
白朮散	1.962085	保命集	
木香白朮散	1.980296	保命集	
立效散	2	保命集	
桃花丸	2	保命集	

(4) 문헌별 『和劑局方』과 유사도 비교 결과

『蘭室秘藏』에는 『和劑局方』과 본초의 구성비가 80% 이상 유사한 방제 6개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들 6개의 방제는 『和劑局方』의 5개의 방제와 유사하지만, 동일한 방제명이 전혀 없었다. 심지어 동일한 명칭을 가진 14개 방제는 본초구성이 매우 달랐

다9). 또한 『蘭室秘藏』에 기재된 방제의 46.1%는 『和劑局方』의 방제와 비교시 완전히 다른 방제 구성을 가졌다.

『內外傷辨惑論』에는 『和劑局方』과 본초 구성비가 80% 이상 유사한 방제 4개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중 雙和散은 『和劑局方』의 雙和湯과 구성비가 완전히 일치하였다. 동일한 명칭을 가진 방제는 2개가 있었으며, 五苓散의 경우는 유사한 방제에 속하나 神應丸은 방제의 구성비와 완전히 달랐다. 또한 『內外傷辨惑論』에 기재된 방제의 52.1%는 『和劑局方』의 방제와 비교시 완전히 다른 방제 구성을 가졌다.

『脾胃論』에는 『和劑局方』과 본초 구성비가 80% 이상 유사한 방제 7개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중 三黃丸, 白朮散, 胃風湯은 『和劑局方』의 三黃丸, 錢氏白朮散, 胃風湯과 구성비가 완전히 일치하였다. 동일한 명칭을 가진 방제는 9개가 있었으며, 三黃丸, 胃風湯의 경우는 구성비가 완전히 일치하였으나 感應丸, 五苓散, 神保丸, 白朮散(『和劑局方』에 白朮散이 2종이 있음.), 胃風湯, 神應丸은 유사한 방제구성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脾胃論』에 기재된 방제의 44.8%는 『和劑局方』의 방제와 비교시 완전히 다른 방제 구성을 가졌다.

『三消論』에는 『和劑局方』과 본초 구성비가 80% 이상 유사한 방제 2개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방제의 명칭은 달랐다. 동일한 명칭을 가진 방제는 『和劑局方』의 人蔘散 2개와 동일한 명칭을 가진 人蔘散이 있었으나 유사한 방제구성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三消論』에 기재된 방제의 70.5%는 『和劑局方』의 방제와 비교시 완전히 다른 방제 구성을 가졌다.

『傷寒直格』에는 『和劑局方』과 본초 구성비가 80% 이상 유사한 방제 5개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방제의 명칭은 모두 달랐고 『和劑局方』의 三黃丸과 『傷寒直格』의 大黃黃連瀉心湯은 구성비와 완전히 일치하였다. 동일한 명칭을 가진 방제는 12개가 있었으며, 桂枝湯의 경우는 유사한 방제에 속하나 涼膈散, 茯苓半夏湯, 五苓散, 白虎湯, 大柴胡湯, 小柴胡

9) 오월환, 김기욱, 이병욱, 김은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구성 비교.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2014. 27(4). p.128.

湯, 小青龍湯, 麻黃散, 白朮散(『和劑局方』에 白朮散이 2종이 있음.), 四逆湯은 유사한 방제구성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傷寒直格』에 기재된 방제의 63.0%는 『和劑局方』의 방제와 비교시 완전히 다른 방제 구성을 가졌다.

『心法類萃』에는 『和劑局方』과 본초 구성비가 80% 이상 유사한 방제 8개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和劑局方』의 小柴胡湯, 三黃丸은 『傷寒直格』의 小柴胡湯, 大黃黃連瀉心湯과 구성비가 완전히 일치하였다. 동일한 명칭을 가진 방제는 15개가 있었으며, 小柴胡湯, 桂枝湯, 升麻葛根湯, 涼膈散, 小青龍湯의 경우는 유사한 방제에 속하나 五苓散, 茯苓半夏湯, 麻黃湯, 白虎湯, 大柴胡湯, 四逆湯, 檳榔散, 白朮散(『和劑局方』에 白朮散이 2종이 있음.), 蘆薈丸은 유사한 방제구성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心法類萃』에 기재된 방제의 61.6%는 『和劑局方』의 방제와 비교시 완전히 다른 방제 구성을 가졌다.

『宣明論方』에는 『和劑局方』과 본초구성비가 80% 이상 유사한 방제 23개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三黃丸, 烏荊丸, 大黃黃連瀉心湯, 四聖散, 辰砂半夏丸, 胃風湯 6개의 방제는 『和劑局方』의 5개 방제와 구성비가 완전히 일치되었다.¹⁰⁾ 동일한 명칭을 가진 방제는 56개가 있었으며, 辰砂半夏丸, 胃風湯, 三黃丸, 烏荊丸, 桂枝湯, 橘皮半夏湯의 경우는 유사한 방제에 속하나 나머지 방제들은 유사한 방제구성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宣明論方』에 기재된 방제의 63.9%는 『和劑局方』의 방제와 비교시 완전히 다른 방제 구성을 가졌다.

『保命集』에는 『和劑局方』과 본초 구성비가 80% 이상 유사한 방제 31개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和劑局方』의 樺皮散, 芎藭湯, 半硫丸, 理中湯, 理中丸은 『保命集』의 樺皮散, 立效散, 半硫丸, 理中丸(2개)과 구성비가 완전히 일치하였다. 동일한 명칭을 가진 방제는 43개가 있었으며, 半硫丸, 理中丸, 樺皮散, 朮附湯, 小續命湯, 定志丸, 妙香丸, 七宣丸의 경우는

유사한 방제에 속하나 나머지 방제들은 유사한 방제 구성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保命集』에 기재된 방제의 67.3%는 『和劑局方』의 방제와 비교시 완전히 다른 방제 구성을 가졌다.

2) 문헌별 본초 등급 판정 기준점의 평균 중량비 해당 방제의 본초 중량비의 순위에 따른 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는 상위 10% 순위에 드는 본초의 중량비의 평균, 30% 순위의 중량비 평균, 60% 순위의 중량비 평균을 문헌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5. Book-specific averages of Herb weight ratio grade criteria. 문헌별 본초 등급 판정 기준점의 평균 중량비

출전	등급별 기준의 평균 중량비		
	1등급	2등급	3등급
三消論	36.3%	22.4%	13.2%
傷寒直格	36.2%	24.7%	14.3%
心法類萃	32.8%	21.9%	12.3%
宣明論方	27.4%	19.1%	10.5%
保命集	34.2%	25.9%	11.8%
蘭室秘藏	19.3%	12.6%	7.0%
內外傷辨惑論	24.0%	16.5%	9.8%
脾胃論	23.7%	14.8%	10.1%
和劑局方	24.1%	16.4%	9.7%

박¹¹⁾의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인 본초의 갯수 분포를 활용한 분석 방법은 방제의 구성에 있어서 藥味の多少 정보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劑量の多少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며 단지 약미가 많으면 평균적으로 본초의 중량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종류를 이용한 분석과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중량비¹²⁾를

10) 오월환, 김기욱, 이병욱, 김은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구성 비교.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 2014. 27(4). p.128. 기존 연구 이후 본초의 동의를 처리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유사 방제의 수가 증가함.

11) 박우용, 백진웅, 이병욱.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본초구성 비교 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권 2호. pp.117-123.

12)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 정보를 중량 단위로 환산하여 방제를 구성하는 전체 중량으로 나누어 표현한 비율임.

활용하여 君臣佐使의 의미를 모방한 등급별 중량비 분포를 분석하는 방식을 추가하였고, 이를 통하여 용약특성에 있어서 이동원이 당시의 다른 의가들에 비하여 劑量少藥味多하다는 평가를 통계적으로 살폈다.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중량비에 등급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두가지 방법¹³⁾중 등급을 나누는 기준점에 해당되는 본초의 중량비의 평균 값을 이용할 경우 劑量少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문헌별 본초 등급 판정 기준점의 평균 중량비를 분석하면 유하간의 저작인 『三消論』, 『傷寒直格』, 『心法類萃』, 『宣明論方』, 『保命集』의 1등급 기준 본초의 평균 중량비가 『和劑局方』과 이동원의 저작인 『蘭室秘藏』, 『內外傷辨惑論』, 『脾胃論』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등급별 본초 구성비를 분석하면, 『蘭室秘藏』은 1등급 본초의 최소 기준 중량비의 평균이 19.3%이고, 『內外傷辨惑論』은 24.0%이며, 『脾胃論』은 23.7%였다. 『三消論』은 36.3%, 『傷寒直格』은 36.2%, 『心法類萃』는 32.8%, 『宣明論方』은 27.4%, 『保命集』은 34.2%였다. 『和劑局方』은 24.1%였다. 그러므로 위의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 조합수 분석 결과와 함께 방제의 劑量多少와 藥味多少의 측면에서 본다면 『和劑局方』과 이동원의 저작에서는 여러 약미를 조금씩 많이 사용하는 劑量少藥味多의 특징을 보이고, 유하간의 저작에서는 劑量多藥味少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考 察

기존의 많은 금원사대가에 대한 연구에서 하간학파의 유하간과 역수학파의 이동원은 당대 최고의 학설로 한의학 이론의 발전을 추동했다고 평가하였다¹⁴⁾. 그러나 이들의 학술사상의 배경이 당시 유행하는 질환에 대한 기존의 치료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창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파간의 논

쟁이라는 관점에서 하간학파와 역수학파의 차이점에 대한 주제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때문에 이들이 새롭게 주장한 학설을 위주로 劉河間은 火熱病機을 위주로한 寒涼한 처방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고, 李東垣은 補土를 위주로 陰火論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溫能除大熱 大忌苦寒之藥損其脾胃”¹⁵⁾라 하여 辛甘溫之劑로 補中하여 陰火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劉河間은 雜病의 치료에 있어서 寒涼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견해¹⁶⁾도 일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논문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李東垣의 저작에서 清熱燥濕藥 사용 등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¹⁷⁾.

『和劑局方』은 宋神宗이 元豐시기(1078~1085)에 천하의 명의들에게 각자 효험을 본 처방을 바치도록 명하고 태의국에 보내 이를 검증하고 처방에 의거하여 약을 만들어 팔도록 했던 국가약전이다. 때문에 『和劑局方』은 북송시기 정부에서 출판한 의서로서 남송시기에 局方醫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영향력이 큰 방제 관련 문헌이다. 따라서 금원사대가들에 의하여 일부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당시의 의학적 흐름을 반영한 서적으로 볼 수 있다.¹⁸⁾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금원사대가 출현 당시 기존의 의학 지식 대명사인 『和劑局方』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의학이론을 창시하고 발전시킨 河間學派와 易水學派의가인 李東垣과 劉河間의 대표적인 저작에 기재된 방제의 본초 구성을 비교하여 그들의 학술적 경향이 기존의 의학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和劑局方』, 『蘭室秘藏』,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三消論』, 『傷寒直格』, 『心法類萃』, 『保命集』, 『宣明論方』의 방제구성의 특징을

13) 등급에 속한 본초들의 평균 중량비를 계산하는 방식과 등급을 나누는 기준점에 해당되는 본초의 중량비의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박우용, 백진웅, 이병욱.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본초 구성 비교 분석.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권 2호. p.117.

15) 張年順 主編, 李杲 著.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5.

16) 陳大舜, 曾勇, 黃政德 譯음, 맹용재, 박현국, 박경남 외7인 옮김. 各家學說 중국편.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109.

17) 김기욱, 김태열, 이병욱. 본초 비율의 순위를 이용한 문헌의 특징 분석 방법. 대한한의학회지. 2014. 27(4). p. 74.

18) 오월환, 김기욱, 이병욱, 김은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구성 비교. 대한한의학회지. 2014. 27(4). p.129.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DB를 구축하여 문헌별 사용한 본초의 종류, 문헌별 방제의 평균 본초수,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수량 분포, 방제의 본초 구성을 무게의 비율로 표현하여 본초 중량비를 이용한 등급별 중량비의 특징, 다빈도 본초 조합, 『和劑局方』의 방제와의 본초 구성의 유사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문헌에 대하여 기재된 방제수, 사용된 본초 종류, 방제별 평균 본초 수량을 정리하면 『和劑局方』 765개의 방제에서 481종의 본초를 사용하였으며 방제의 평균 본초수는 8.6개 였고, 『蘭室秘藏』은 방제 277개에서 217종의 본초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10.4개의 본초를 사용하였고, 『內外傷辨惑論』은 방제 46개에서 88종의 본초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8.1개의 본초를 사용하였고, 『脾胃論』은 방제 63개에서 102종의 본초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8.5개의 본초를 사용하였고, 『三消論』은 방제 11개에서 36종의 본초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5.8개의 본초를 사용하였고, 『傷寒直格』은 방제 35개에서 56종의 본초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4.7개의 본초를 사용하였고, 『心法類萃』는 방제 67개에서 138종의 본초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5.9개의 본초를 사용하였고, 『保命集』은 방제 212개에서 184종의 본초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5.1개의 본초를 사용하였고, 『宣明論方』은 방제 350개에서 365종의 본초를 사용하였고 평균 6.9개의 본초를 사용하였다. 『和劑局方』과 이동원 저작의 문헌에 기재된 방제의 본초 종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하간 저작 문헌에 비하여 다수의 본초를 사용한 방제의 비율이 더 높다.

『和劑局方』과 이동원의 문헌에 대한 문헌별 다빈도 본초 조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和劑局方』은 『蘭室秘藏』, 『內外傷辨惑論』, 『脾胃論』에 비하여 乾薑, 白芍藥, 茯苓, 肉桂, 川芎간의 조합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蘭室秘藏』은 『和劑局方』에 비하여 升麻, 柴胡, 陳皮, 蒼朮, 黃芪, 黃柏간의 조합이 다빈도로 나타났고, 『內外傷辨惑論』과 『脾胃論』은 麥門冬, 升麻, 神麩, 五味子, 陳皮, 蒼朮, 黃芪, 黃柏간의 조합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和劑局方』의 방제가 이동원의 저작에 비하여 溫裏, 補血의 조합이 많

았고, 이동원이 문헌의 저술 당시 『和劑局方』과 달리 利氣, 清熱燥濕, 補陰하는 조합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가 새로운 이론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제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和劑局方』과 유하간의 문헌에 대한 문헌별 다빈도 본초 조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宣明論方』은 『和劑局方』에 비하여 火熱에 대응하는 桔梗, 大黃, 薄荷, 石膏, 連翹, 荊芥, 黃芩간의 조합이 다빈도로 나타났으며, 『保命集』은 桂枝, 麻黃, 防己, 防風간의 조합이 다빈도로 나타났으며, 『三消論』과 『傷寒直格』 및 『心法類萃』는 大黃, 芒硝, 石膏, 連翹, 梔子, 滑石간의 조합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和劑局方』이 『三消論』, 『傷寒直格』, 『心法類萃』, 『保命集』, 『宣明論方』에 비하여 乾薑, 茯苓, 肉桂간의 조합이 다빈도로 나타났고 유하간의 저작에 비하여 溫裏하는 조합이 많았음을 뜻한다. 또한 유하간은 문헌의 저술 당시 전체적인 방제구성에 있어서는 清熱, 祛風하는 조합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가 새로운 이론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제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동원과 유하간의 문헌에 기재된 다빈도 본초 조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이동원의 저작은 유하간의 저작에 비하여 麥門冬, 升麻, 柴胡, 神麩, 五味子, 陳皮, 蒼朮, 黃芪, 黃柏간의 조합이 다빈도로 나타났으며, 유하간의 저작은 이동원의 저작에 비하여 桂枝, 桔梗, 大黃, 麻黃, 芒硝, 薄荷, 防己, 防風, 石膏, 連翹, 梔子, 荊芥, 滑石, 黃芩간의 조합이 다빈도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하면 이동원 방제의 특성은 升藥, 益氣, 利氣, 消導의 측면이 유하간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나고, 유하간의 경우는 이동원의 저작에 비하여 清熱, 祛風 중심의 外感熱病에 대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초 구성비를 이용하여 이동원의 저작과 『和劑局方』 방제의 유사도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蘭室秘藏』은 2.2%의 방제가 유사하였으며, 동명의 방제 14개 중 유사한 방제는 없었다. 『內外傷辨惑論』은 8.7%의 방제가 유사하였으며, 동명의 방제 2개 중 1개의 방제가 유사하였다. 『脾胃論』은 11.1%의

방제가 유사하였으며, 동명의 방제 9개 중 2개의 방제가 유사하였다. 이는 이동원이 그의 문헌을 저술 당시 『和劑局方』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저자가 새로운 이론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제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¹⁹⁾. 때문에 易水學派의 이론이 河間學派의 이론에 비하여 새로운 것이 적다고 『和劑局方』의 골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일부 의견²⁰⁾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²¹⁾

본초 구성비를 이용하여 유하간의 저작과 『和劑局方』 방제의 유사성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 『三消論』은 18.2%의 방제가 유사하였으며, 동명의 방제 2개 중 유사한 방제는 없었다. 『傷寒直格』은 14.3%의 방제가 유사하였으며, 동명의 방제 12개 중 1개의 방제가 유사하였다. 『상한심법류취』는 11.9%의 방제가 유사하였으며, 동명의 방제 15개 중 5개의 방제가 유사하였다. 『保命集』은 14.6%의 방제가 유사하였으며, 동명의 방제 43개 중 8개의 방제가 유사하였다. 『宣明論方』은 6.6%의 방제가 유사하였으며, 동명의 방제 56개 중 6개의 방제가 유사하였다. 이는 유하간이 문헌의 저술 당시 『和劑局方』의 유용한 방제를 참고하여 일부 인용하였으나 전체적인 방제구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문헌에 해당하는 『和劑局方』과 전혀 다른 본초 구성을 가지는 방제를 창조하여 그의 새로운 이론에 부합하도록 하였음을 나타낸다.²²⁾

문헌 혹은 인물별 劑量과 藥味의 多少의 특징은 본초의 중량비에 등급을 설정하여 등급을 나누는 기

준점에 해당되는 본초의 중량비의 평균 값을 이용할 경우 劑量少의 의미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방제의 劑量多少와 藥味多少의 측면에서 본다면 『和劑局方』과 李東垣의 저작에서는 여러 약미를 조금씩 많이 사용하는 劑量少藥味多의 특징을 보이고, 劉河間の 저작에서는 劑量多藥味少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結 論

본 연구에서는 劉河間과 李東垣의 저작과 『和劑局方』에 기재된 방제의 본초구성을 이용하여 본초 조합 빈도 그리고 중량비를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저자들의 학술적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劑量多少藥味多少의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和劑局方』과 이동원의 저작은 劑量少藥味多의 특징을 지녔으며, 유하간의 저작은 劑量多藥味少의 특징을 지녔다.

2. 다빈도 본초 조합에 사용된 본초의 특성으로 분석한 결과 이동원의 저작은 『和劑局方』에 비하여 溫裏, 補血의 조합이 적었고, 利氣, 清熱燥濕, 補陰하는 조합은 많았다.

3. 유하간의 저작은 『和劑局方』에 비하여 溫裏하는 조합은 적었고, 清熱, 祛風하는 조합은 많았다.

4. 이동원 방제와 유하간의 방제의 특성을 분석하면 이동원의 방제는 升藥, 益氣, 利氣, 消導의 측면이 강고, 유하간의 경우는 清熱, 祛風 중심의 外感熱病에 대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5. 방제를 구성하는 본초의 중량비를 이용하여 유사도를 비교하고 同名의 방제에 대한 유사도를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이동원의 저작에 포함된 방제 386개 가운데 17(4.4%)개 만이 유사한 방제가 있었고 同名의 방제의 경우에도 12%만 유사한 방제 구성을 가졌다. 유하간의 저작에 포함된 방제 675개 가운데 69(10.2%)만이 유사한 방제가 있었고 同名의 방제의 경우에도 15.6%만 유사한 방제 구성을 가졌다. 이는 유하간과 이동원 모두 기존의 『和劑局方』에 기재된 방제를 활용한 부분이 매우 적

19) 오월환, 김기욱, 이병욱, 김은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구성 비교. 대한한의학회지. 2014. 27(4). p.121-131.

20) 廖育群, 傅芳, 鄭金生 공저.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공역. 중국과학기술사학회. 서울. 일지사. 2007. p. 655. “의사학적인 각도에서 보면 역사학파가 성공적인 면은 있지만 그 처방과 용약은 辛溫香燥에 치우친 和劑局方 용약의 골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하여 하간학파의 학술 관점은 병인의 인식은 물론이고 용약법도 창조적이고 공격적인 진전이 있었다.”

21) 오월환, 김기욱, 이병욱, 김은하. 태평혜민和劑局方과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구성 비교. 대한한의학회지. 2014. 27(4). pp.121-131.

22) 오월환, 김기욱, 이병욱, 김은하. 태평혜민和劑局方과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구성 비교. 대한한의학회지. 2014. 27(4). p.121-131.

었고, 그들의 이론에 부합되는 새로운 방제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References

1. 박우용, 백진웅, 이병욱.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본초구성 비교 분석. 한국외사학회지. 2011. 24권 2호. p.117.
WY Park, JU Baek, BW Lee. Analysis of Prescriptions from Somunsunmyungronbang and Nansilbija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1. Vol 24(2). p.117.
2. 정성채, 장희욱, 김기욱, 박현국, 이병욱. 劉完素의 방제학설 및 임상경험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5. 18권 4호. pp. 101-119.
SC Jeong, HW Jang, KW Kim, HK Park, BW Lee. A study on LiuWanSu's Prescription Theory and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 Classics. 2005. Vol18(4). pp. 101-119.
3. 백진웅, 이병욱. 方藥合編 수록 처방 내의 약물 조합 빈도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권 4호. pp.55-67.
JU Baek, BW Lee. A study on the frequencies of medicinal herb combinations in the prescriptions of Bangyakhappyeon(方藥合編).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 Classics. 2011. Vol 24(4). pp. 55-67.
4. 신상우, 백진웅, 이병욱. 溫熱經緯 수록 처방 내의 약물 조합 빈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1. 25권 5호. pp.759-764.
SW Shin, JU Baek, BW Lee. Study on the Frequencies of Medical Herb Combinations in the Prescriptions of Wenrejingwei.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1. Vol 25(5). pp.759-764.
5. 박재민, 신병철, 허광호, 이병욱. 보험처방과 실제 임상처방의 분석을 통한 한약제제 적응증 비교 고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3. 17권 2호. pp.129-138.
JM Park, BC Shin, KH Heo, BW Lee. The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of indications of herbal medicine through analysis about insured herbal extracts and clinical prescriptions - Focusing on Bojungikgi-tang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3. Vol 17(2). pp.129-138.
6. 박대식, 이부균, 이병욱. 방제의 본초 중량비를 활용한 방제 비교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학회지. 2013. 21권 2호. pp.121-132.
DS Park, BK Lee, BW Lee. A Study on the Comparative Method of Prescription Using Herb Weight Ratio. Herbal formula Science. 2013. Vol 21(2). pp. 121-132.
7. 廖育群, 傅芳, 鄭金生 공저. 박현국, 김기욱, 이병욱 공역.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 서울. 일중사. 2007. p. 655.
YJ Liao, F Fu, JS Zheng writing. HK Park, KW Kim, BW Lee Translation. Chinese Technology History(part of medical). Seoul. Yiljungsa. 2007. p.655.
8. 맹용재, 박현국, 박경남, 김남일, 신영일, 김용진, 안상우, 김 훈, 김홍균, 차웅석 옮김. 陳大舜. 曾勇, 黃政德 역음. 各家學說中國篇.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109.
WJ Maeng, HK Park, KN Park, NY Kim, YY Shin, YJ Kim, SW Ahn, H Kim, HK Kim, WS Cha Translation. DS Chen, Y Zeng writing.. Auther specific theories in China. Seoul. Daeseong medical Books.
9. 오월환, 김기욱, 이병욱, 김은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素問宣明論方과 蘭室秘藏의 방제구성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4).

p.121-131.

YH Wu, KW Kim, BW Lee, EH Kim.
Analysis of Prescriptions from
Taepyeonghyeminhwajegukbang,
Somunsunmyungronbang and Nansilbijang.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 Classics.
Vol27(4). pp.121-131.

10. 김기욱, 김태열, 이병욱. 본초 비율의 순위를 이용한 문헌의 특징 분석 방법.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14. 27(4). p. 74.

KW Kim, TY Kim, BW Lee.
Analysis of Prescriptions from
Taepyeonghyeminhwajegukbang,
Somunsunmyungronbang and Nansilbijang
based on Herb weight ratio grade.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 Classics.
Vol27(4). p.74.

11. 張年順 主編, 李杲 著. 李東垣醫學全書脾胃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5.
NY Zhang Edit. G Li writing. Piweilun of
Lidongyuan's medical books. Beijing.
Zhongguozhongyiyachubanshe. 2006.
p.45.